

[종합·국제]

北 8·15 축전 취소 왜?

걸으론 ‘심각한 수해 피해’ 속으론 ‘체제 긴장 조성용’

북한이 오는 14~16일 평양에서 개최기로 합의했던 ‘자주·평화·민족대 단합을 위한 8·15 통일대축전’을 취소하기로 한 것은 수해가 심각한 상황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북한이 연초부터 야심차게 준비했던 ‘대(대) 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전격적으로 취소한 데서도 알 수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1일 남측위원회에 보낸 전문에서 취소 배경에 대해 “최근 예년에 없는 폭우로 인해 북과 남은 커다란 피해를 입었으며, 북측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수해 복구를 위해 많은 인민들이 동원된 상태”라며 비상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즉 최근 폭우로 북한이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도저히 행사 자체를 개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더욱이 남북한이 같이 수해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지목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달 중순의 집중 호우로 엄청난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양을 비롯해 평안남도 양덕·신양·성천군, 황해북도 신평·연산·곡산군, 강원도 김화·금강·창도군 등에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인명피해만 도 ‘수백명’에서 많게는 3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이번 홍수로 6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3만ha의 농경지가 침수·유실·매몰됨에 따라 10만 가량의 식량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평양의 평양시도 대동강이 범람해 옥류관과 수 많은 양수장이 침수되고 생산건물과 전력공급망, 철도가 파괴됐다.

직접적 원인이 수해라면 미사일 발사 이후 내부적 긴장 조성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이 채택된 데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강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달 21일부터는 을지포커스 스텔스 훈련이 실시된다.

북한은 이 훈련에 대해 ‘북침전쟁 연습’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내부적으로 긴장의 식을 고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8·15 축전을 개최하는 것이 내부 분위기를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이 훈련에 대해 ‘북침전쟁 연습’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내부적으로 긴장의 식을 고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8·15 축전을 개최하는 것이 내부 분위기를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폭염 식히는 ‘분수대 체조’

설씨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유럽과 북미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1일 미국 콜리블랜드에서 더위를 참지 못한 한 소년(가명)이 공원 분수대 사이로 덩달며 놀고 있다.

쿠바 권력이동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장 수술 때문에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 국방장관에게 권력을 임시 이양한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밝혔다.

카스트로 의장은 이날 카를로스 발렌시아가 비서실장이 국영 TV를 통해 발표한 서한에서 “최근 아르헨티나와 쿠바 동부를 잇따라 방문하는 등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로 장 출혈 증세를 보여 수술을 받았다”면서 “몇 주간 휴식이 필요하며 국가평의회 의장직 등을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 국방장관에게 일시적으로 이양한다”고 말했다.



피델 카스트로(왼쪽) 국가평의회 의장과 동생이자 권력 2인자인 라울 카스트로 국방장관. 1959년 쿠바 혁명의 동지이기도 한 카스트로 형제는 지금까지 47년동안 쿠바를 이끌어왔다.

카스트로의장, 장 출혈 증세 수술 동생 라울국방에 의장직 임시 이양

세계 최장기 집권자인 카스트로 의장은 1959년 쿠바 혁명으로 권좌에 오른 뒤 1960년대 미국의 피그만 침공작전, 쿠바 미사일 위기 등 수많은 위기를 견뎌내며 47년간 쿠바를 통치해 왔다. 그가 집권 후 권력을 잠시나마 이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스트로는 또 이달 13일 예 정된 80세 생일 축하 행사를 쿠바 혁명군 50주년인 12월 2일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카스트로는 지난 2001년 6월 연설 도중 잠시 심실진 건강에 관한 언급을 불러일으켰으며 최근에는 파킨슨병에 걸렸다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으나 특유의 화법으로 이러한 의혹들을 불식시켰다. 지난주에는 쿠바 공산혁명 53주년 기념 연설을 하면서 “100세에 현직을 떠날 것”이라며 견

재를 과사하기도 했다. 동생이자 후계자인 라울 카스트로(75) 국방장관은 국가평의회 의장, 공산당 제1서기, 군 최고사령관 등을 대행하게 된다.

카스트로 의장의 권력 이양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마이애미 ‘리틀 아바나’에서는 수 백명의 쿠바 망명자들이 독재자의 종말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환호했다. 이들은 “자유 쿠바 만세” 등을 외치며 환호했으며 몇몇은 휴대전화로 쿠바에 있는 친지와 친구들에게 연락을 시도하기도 했다.

미 백악관도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피터 왓킨스 백악관 대변인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카스트로의 건강을 추측할 수 없지만 쿠바의 자유의 날을 위해 계속 힘을껏”이라고 말했다.

아프간 평화행사에 정부 ‘초비상’

신속대응팀 현지 파견 참가자 미차질제 당부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열리는 ‘아프가니스탄 2006 평화행사’와 관련,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우려해 관계당국의 요원들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현지 파견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일 “외교부와 국정원 관계자 4명으로 구성된 팀을 아프가니스탄 카블로 어제 파견했다”면서 “오늘 현지에 도착하는대로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속대응팀은 현재 아프가니스탄

에 최소 500명에서 최대 1천여명까지 입국할 것으로 알려진 행사 참여 가능 인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마찰’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활동을 주로 할 계획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에 대해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아시아협력기구(IACD) 관계자는 “안전문제”가 없다며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뜻을 밝히고 있다.

앞서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지난달 27일 자국 관공비자를 소지한 한국인 5명에 대해 당일부로 IACD 주관행사가 종료된 후 적절한 시기까지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日 방위백서 “북 미사일 발사 안보상 중대 문제”

독도주변 한국해양조사선 조사 착수도 언급

일본은 1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지난달 5일 발사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일본의 안전보장상 중대한 문제로 국제법상의 문제도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백서는 북한의 미사일이 대포동 2호의 파생형을 포함해 사정의 장기화 가능성이 한층 더 진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군사를 중시하는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며 선군정치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주변 지역적세에 대해서는 냉전체제 붕괴 후에도 각지에 대립 구도가 남아있으며, 안보관이나 위협 인식도 국가별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지난달 독도 주변 해역에서 한국 해양조사선이 조사에 착수했던 점도 언급했다.

중국 부문에서는 군의 현대화 목표가 중국의 방위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 지난 18년간 두자릿수 증가를 계속해온 군사비 증대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중국의 국방비가 오는 2008년 예산에서 20%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국군의 활동이 동중국해 등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중국에 대한 경계감을 한층 선명히 드러냈다.

7.9 공무원 7.9 공인 중개사

공무원 7.9 공인 중개사

- 서울시: 10월1일 932명 공채대비
- 선관위: 9월24일 100명 공채대비
- 정규이론반 문제풀이반
- 일반경찰,해양경찰,101단경찰반
- 정규이론반 문제풀이반
- 경찰시험전문 강좌로 100% 합격목표
- 9월 최종정리반(핵심요약+문제풀이)
- 9월 1개월간 전과목 정리
- 10월 개별학습의 극대화

40년 전국최고의 전통 노량진·광주울스타임 출강 청강후 등록(강의만점)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맞은편 광주동부서쉬

www.Chonnamgosi.co.kr (062)222-5105

지붕·옥상슬라브 우레탄폼 방수전문!

지붕 방수도 되고 단열도 되는 최첨단 신소재

겨울철 보온, 난방비 절감! 지금 시공하십시오!!

- 비가 새서 걱정하십니까?
- 여름에 더워서 자증 났습니까?
- 겨울이 춥습니까?
- 소음이 심하십니까?

한번 시공으로 건물 수명을 늘리십시오!

262-0606 262-0450

(주)태양주백개발 | TEL(062) 262-0606 262-0450

곡내영고시학원

“교원임용 강좌에도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풀이반 개강 9월 2일 (현재 예약접수중)

- 교육학/과내영 선생
- 수학/임대성 교수
- 생물/김지옥 교수
- 체육/내용희/김용호 교수
- 유아교육과정/임미선 선생
- 국어/최병래 교수
- 과학교육론/장영민 교수
- 지구과학/박명순 교수
- 체육교육론/조남용 교수
- 초등교육과정/위재건 선생
- 국어/이영철 교수
- 사회교육론/김형수 교수
- 미술/김성희 교수
- 영어/송국 교수
- 화학/이영철 교수
- 일반사회/김형수 교수
- 음악/박성선 교수

수강문의: 062-529-0090 전남대 정문앞(신안사거리) http://www.naeyoung.com

경찰의 꿈을 이루는 곳!

김재규 경찰학원

합격의 전당 광주 김재규경찰학원이 노량진의 합격 신화를 이어갑니다

* 합격을 앞당기는 시스템

- 매월 1일, 15일 개강
- 6개월/1년 화원제
- 오전 이론+저녁 이론강의+오후실전문예풀이 모두 수강가능
- 2개월 종합반 오전이론+저녁이론 강의
- 17개월 무료 동영상제공(회원제)
- 정독사실, 고시원 법인 혜택
- 매주 토요일 기동영어특강 수강
- 매일 실전형 고사 실시(OMR카드 성적처리대안장리표 제공)
- 전용자습실 사용가능
- 시뮬레이션 가능
- 시험반 선별 맞춤 수강
- 개인성적표 제공

* 차별화된 전문 교수진

김재규 교수	형법	형사소송법
김재규 교수	조례법	윤경근 교수
수사	영어	영어
오수필 교수	오순아 교수	정보열 교수

합격의 영광 뒤에는 김재규경찰학원이 있습니다

김재규 경찰학원 Kim Jae Gyu Police Academy

062)236-3112 전남여고 후문 앞 www.police3112.net

공무원 여름방학 2차개강

- 첫진도 시작반(이론반) 8월 1일 (광주유일 B반)
- 문제풀이 8월 1일(서울직 선관위 대비)
- 경찰직 이벤트 무료교재(138000), 10월 1일 시험대비 문제풀이 무료)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쉬 222-4560

공인중개사 최종문제풀이 특강

매일 40문항 모의시험 문제풀이

8월 1일 개강

오전반 9:20까지 입실하여 40분간 모의시험을 치른 후 10:10부터 핵심요약정리와 모의시험지 해설강의를 통해 최종 합격전점을 할 수 있는 강좌입니다

야간반 18:30까지 입실하여 40분간 모의시험 치른 후 19:10부터 문제풀이 해설강좌 진행

"원서접수 받습니다." 광주고시학원 www.gwangjugosi.com 227-8003

상위권 대학면접 전문-김영

호남유일 의·치·의학전문대학원대대강좌

MEET/DEET 대비반 개강

일반, 학사, 사대면접 약대, 한의대면접

편입대비 영어 기초반 생물, 화학, 한문, 한의학

교육대편입대비-김윤신 교육학

김영대학면접학원 (광주동부경찰서쉬) 개강: 8월 1일 ☎ 227-8088